

광주 ‘AI 팩토리’ 본격 가동…제조업 경쟁력 높인다

예산 63억2000만원 확보…2028년까지 미래차 부품 공장 적용 목표
부품 개발·실증·인증 패키지 체계 설계…불량 예측·공정 최적화 기대

광주시가 제조공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AI 팩토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부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 사업(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에 최종 선정되면서 총 63억2000만원 규모의 상용화 프로젝트가 이날 출발했다.
이번 사업은 차량 조경모듈 복합공정에 AI 기반 자율제어를 적용해 생산라인을 스마트화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재정 구조는 국비 44억6000만원과 민간 18억6000만원으로 구성돼 시비 부담 없이 추진된다.
현장 적용을 위해 LG이노텍과 제이디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오소프트, 아이브가 컨소시엄을 꾸려 연구개발과 실증, 양산 연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기술 로드맵은 조립공정 통합 자동화와 품질 고도화를 한 축으로 묶었다. 양팔 로봇을 중심으로 라인을 통합하고, 디지털 트윈과 AI 비전으로 로

봇 제어 정밀도를 높여 불량 예측과 공정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생산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 운영 플랫폼으로 수집·분석해 설비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지능형 관제를 구현한다.
현장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에 의존하던 의사결정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 생산성·품질·가동률을 ‘세트’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선정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시는 자동차 전장부품 도장공정에 자율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을 통해 알고리즘의 현장 적합성과 공정 안정성을 검증해왔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산업부 ‘피지컬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AI 팩토리 전환을 클러스터의 핵심축으로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역 부품기업의 미

래차 부품 개발·실증·인증 전 주기를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을 마치고 산업부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번 상용화 실증으로 공정 데이터·불량 예측 모델·디지털 트윈 자산을 축적해 예타 단계의 기술 성숙도(TRL)와 파급효과 입증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AI 팩토리의 파급효과는 조립·검사·물류 전 영역의 자동화를 상상에 있다. 양팔 로봇과 AI 비전의 결합은 나인도 높은 부품 픽킹과 정밀 조립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라인 전체의 리드타임과 변동성을 낮춘다는 점에서다.
품질경쟁력과 수율 개선, 데이터 자산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AI 제조혁신 선도사업과 클러스터 조성이 연결되면 기술개발과 양산적용, 인증·판교가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체계가 갖춰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국비와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기관 간 협력을 극대화해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점검 전남도, 전략 방향 등 논의

전남도가 16일 ‘에너지 미래도시 100일 플래그 점검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기획전략본부 신설 이후 실·국별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전략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전남 여건을 반영한 보완 건의사항, 태양광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공급 계획,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 유치 상황 및 인력 양성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오픈AI-SK 및 블랙록의 투자 발표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은 전남의 최대 프로젝트로, 전남이 대한민국 대표 RE100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국 간 협업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경제부지사 및 기획전략본부 중심으로 실·국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부처 협의와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로 이맛이야” 1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의 감나무에서 까치가 단감을 맛있게 쪼아먹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키로

총 3.6GW 규모 조성 목표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 민관협의회’를 열고 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1단계로 진도 맹골도 인근해역에 1.47GW규모의 3개 단지(600·320·550MW)를 조성하고 2단계로 2.13GW 규모의 2개 단지(1.2GW·930MW)를 조성, 총 3.6GW 규모의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만든다는 구상이다.
1, 2단계는 발전단지 위치 및 접속 선로 등을 고려해 구분될 뿐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에 10개 단지 3.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민·관협의회에 이어 17일(2회), 24일(4회) 등 진도군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6차례 열고 제 2차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업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향후 지자체 주도형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최대 0.1)를 부여받아 현금성 지원비 등으로 지역 주민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들에게 마지막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 이전에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가 모두 지정되면 주민 이익 공유와 에너지 기본 소득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

내년 여수 시장 출마 의사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30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명 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힘든 순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직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공직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명 부지사는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는 물론 고품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전남의 100년 먹거리 마



련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광주·군·민간 공방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숙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
명 부지사는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여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을 거쳤다. 명 부지사는 내년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방정가 라운지

채은지 “민자도로 재정 건전성 등 관리 강화”

광주시의원 발의…조례안 통과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의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전반의 기준을 체계화했다.
골자는 운영평가의 정례화와 재정지원 통제다. 시는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해 개선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협약 변경 절차와 평가·점검 체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 운전자도 공공성과 투명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통제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원생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와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사취지

갯벌 위에 춤추는 두루미, 사취

암반사취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다움

갯벌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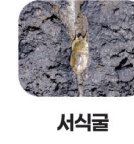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켜켜이 쌓인, 염농계,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쾨르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농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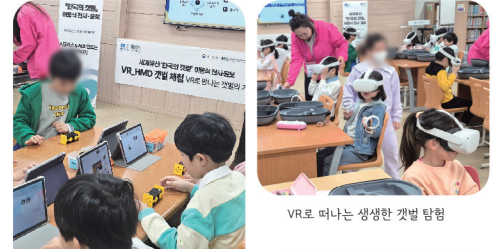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대 체험 수업 현장!



VR으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대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